

롤드컵 6회 우승 T1,  
조력자 SKT의 22년 지원 빛났다

**- 2004년 T1 창단 이후 물심양면 지원… 국내 최초 유망주 시스템 도입**

**- T1, ‘테란의 황제’ 임요환부터 ‘페이커’ 이상혁까지 국내 e스포츠 역사와 함께 해**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2025. 12. 16.] 보도참고자료**

15일, SK텔레콤의 플래그십 스토어 T팩토리(T Factory) 성수에서 T1의 ‘2025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월즈) 우승 기념 팬미팅이 팬들의 성원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T1의 오랜 조력자인 SK텔레콤이 월즈 통산 6회, 월즈 최초 3연속 우승(롤드컵 쓰리핏)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T1과 그 팬들을 위해 마련했다.

SKT는 이번 팬미팅 외에도 T1의 우승을 기념해 ‘SKT x T1 우승 기념 팬 감사 이벤트’를 진행, 수험생 고객을 위한 우승 기념 굿즈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SKT와 T1의 인연은 2004년 시작됐다. SKT는 e스포츠 태동기를 맞아 청년 세대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T1을 창단했다. 다양한 e스포츠 팀을 구성했던 T1은 LoL 종목이 전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12년 LoL팀을 새롭게 꾸렸고, 이듬해인 2013년 ‘페이커(Faker)’ 이상혁 선수를 앞세워 처음으로 롤드컵 정상에 올랐다.

‘LoL 역사상 최강팀’이라는 수식어를 들었던 2015년 T1은 그해 롤드컵에서 압도적 실력으로 경쟁자들을 물리치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2016년에도 정상을 차지한 T1은 최초의 롤드컵 2연속 우승, 총 3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썼다.

T1이 e스포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동안, SKT는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T1 및 한국 e스포츠 성장에 기여해왔다.

SKT는 T1에 국내 최초 유망주 시스템을 도입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했다. ‘오너’ 문현준 선수 등 ‘T1 루키즈’ 출신 유망주 선수들이 현역 최고 수준의 프로게이머로 활동 중이다.

또, SKT는 구단 운영 외에도 2005년부터 8년 간 한국 e스포츠협회 회장사를 맡고 각종 대회를 주최하며 국내 e스포츠 발전에 힘써왔다. ‘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e스포츠 선수들도 SKT와 유독 인연이 깊다. ‘테란의 황제’로 불린 임요환을 비롯해 최연성, 정명훈 등 ‘SKT T1’ 소속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의 활약은 곧 e스포츠 붐으로 이어졌다.

LoL의 ‘메시’로 불리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도 2013년 당시 ‘SKT T1’에 합류한 이후, 10년 넘게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사랑받고 있다.

SKT는 2019년 세계적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그룹 컴캐스트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T1을 글로벌 e스포츠 전문 기업으로 도약시켰다.

2021년 인적분할 후엔 SK스퀘어 포트폴리오사로 재편됐지만, SKT는 T1과 분리된 이후에도 꾸준히 T1의 메인 스폰서로서 지원하는 한편, e스포츠 후원도 이어오고 있다. ‘아마추어 스포츠 후원 및 미래지향형 스포츠 후원’이란 전략 하에 한국 e스포츠협회와 e스포츠 국가대표팀을 도왔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LoL 종목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기도 했다.

T1 팬미팅 현장에 참석한 SKT 관계자는 “T1의 우승을 축하하며,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 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T1이 e스포츠의 세계적 아이콘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